

# Steinbeck의 “The Vigilante”에 나타난 탈개인화 군중심리 현상에 관하여

정병곤<sup>1</sup>, 이건근<sup>2</sup>

## On the Phenomenon of Crowd Psychology through Deindividuation Shown in Steinbeck’s “The Vigilante”

Jeong, Byeonggon<sup>1</sup> · Lee, Geongeun<sup>2</sup>

### 요 약

이 논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시도로서 John Steinbeck의 단편 소설 “The Vigilante”에 나타난 군중심리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 시대 집단화된 폭력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필자들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군중심리이론들 즉 Gustave Le Bon의 의견, Freud의 심리학, 수렴 이론, 규범발생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 탈개인화 이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후 현대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집단적 행위는 물론 국제적 테러단체의 폭력성의 원인으로서는 탈개인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양태를 “The Vigilante”에서 찾는다. 그 결과 주인공 Mike가 군중심리에 따른 주민들의 폭력적 살인행위에 가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한 공허함을 느낀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윤리적 통제와 사회의 구속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상당한 자극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무분별하게 행동할 수 있음이 밝혀진다. 이 논문의 기대효과로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넘치는 현대에 문학작품을 통한 탈개인화 군중심리의 분석은 범죄학뿐만 아니라 정책학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핵심어 : John Steinbeck, “The Vigilante”, 군중심리, 탈개인화, 집단적 폭행

### Abstract

This paper, as a convergence attempt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aim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 of crowd psychology shown in John Steinbeck’s short story “The Vigilante” and illuminate what causes the collectivized violence these days. For this purpose, we study the crowd psychology theories beginning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such as Le Bon’s idea, Freudian theory, Convergence theory, Emergent

Received(January 12, 2018), Review Result(January 19, 2018)

Accepted(March 9, 2018), Published(April 30, 2018)

<sup>1</sup> Author, 6227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Nambu Univ., Choemdanjungang-Ro 23, Gwangsan-Gu, Gwangju, South Korea. E-mail: kant@hanmail.net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61452, Visiting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osun Univ., Pilmundae-Ro 309, Dong-Gu, Gwangju, South Korea. E-mail: leegg@chosun.ac.kr

norm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and Deindividuation theory. After this, we emphasize that the phenomenon of deindividuation comes to the fore as a reason for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violence as well as the collective online activities becoming one of the maladies afflicting modern society and find out the specific aspects in "The Vigilant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anyone can act indiscreetly once a considerable stimulus occurs in the situation where individuals lack ethical control, and the society wants more binding force. As an expectancy effect, in the modern times flooded with all sor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alysing the mob psychology through deindividuation by using a literary work is useful for policy studies as well as criminology.

Keywords : John Steinbeck, "The Vigilante", crowd psychology, deindividuation, collective violence

## 1. 서론

1930년대 미국의 공황기를 다룬 장편 소설 *The Grapes of Wrath*의 작가로 잘 알려진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John Steinbeck은 1933년 자신의 에세이 "Argument of Phalanx"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개체로서 그리고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on his own and as part of a group)"고 주장한 바가 있다[1]. 다시 말해서 Steinbeck은 장악력이 강한 집단에 구성원들이 소유한 정체성의 총합과 다른 충동, 의도, 목적, 수단, 반응을 가진 별개의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2].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두었던 이 시기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전체주의적 정부가 기승을 떨친 때이었고, 주지하듯이 이후에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들의 전철을 밟았으며 21세기에서 북한을 물론이고 중동의 일부 이슬람세력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와중에 Steinbeck은 1935년에 소박한 집단의식을 다룬 *Tortilla Flat*을 출간함으로써 명성을 떨친 뒤 1939년까지 노동소설 삼부작 즉 *In Dubious Battle*과 *Of Mice and Men* 그리고 *The Grapes of Wrath*를 통해 사회 참여적 작가로서 오늘날까지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나온 단편소설집 *The Long Valley* (1938)에 노동주제 단편소설 "Breakfast"와 "The Raid" 그리고 "The Vigilante"가 작가의 집단의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들 중 "The Raid"는 두 명의 주인공들이 공산주의 집단의 명분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내한다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앞서 말한 노동주제 장편 소설들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3]. 그러면서도 당시 노동자들이 미국공산당을 자신들에게 헌신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가장 크고 잘 조직된 집단으로 여겼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회혁명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가족과 온전한 아침식사를 먹을 만큼의 별이가 있기를 원할 뿐이었다는 것이 "Breakfast"에 잘 드러나 있다[4]. 즉 Steinbeck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집단의 형태는 그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역할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으로 한 집단을 형성하는 가운데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서 단편소설 "The Vigilante"는 탈개인화된 군중심리가 익명성과 집단을 방패로 한 무책임성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폭력성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며, Steinbeck의 사상이 공산주의와 무관한 인간의 집단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저술 당시 San Jose에서 실제로 발생한 군중소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소셜 속 시위군중의 폭인 죄수에 대한 살인 사건은 오늘날 21세기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의 폭동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탈개인화 즉 자기평가와 그것에 따른 자기 검열이 감소됨에 따라 반규범적인 행위가 통제되지 않음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5]. 즉 집단의 한 세포를 형성한 주인공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위과정에서 항상 커다란 존재를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학교나 지역사회 심지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 폭행사건 등 실제현실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학문적 시도로서 Steinbeck의 “The Vigilante”에 나타난 군중심리의 성격을 정의하여 군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자들은 먼저 군중심리에 대한 일반적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후 이 소설의 이야기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탈개인화에 따른 군중심리의 면모를 구체화하겠다.

## 2. 군중심리에 대한 일반이론과 탈개인화 과정

군중심리 이론가 McDougall은 [6]에서 야만인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음악적 요소를 가진 무용을 관찰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커다란 개체가 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을 그린 바가 있다. 그는 각 개인들이 고립된 상태에서보다 집단을 이루었을 때 훨씬 강한 힘을 발산함을 강조하고, 이 경우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잃는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한다[6]. 또한 이러한 집단적 행위들의 소산이 여러 예술작품으로 남아있음은 이미 인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6]은 개와 비둘기 그리고 상어를 상징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Torres Straits의 Murray 섬 주민들이 totemism에 근거한 매우 특이한 몸동작을 가진 춤을 추면서 그들의 한 구성원을 처형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군중심리와 관련하여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공동책임을 개인들에게 강요하고, 집단의 이익과 행복이 거의 양심의 형태로 개인들의 정신구조에 내재되어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McDougall은 그 결과 집단의 명분에 대한 복종이 항상 커다란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적 수준을 넘는 힘이 인성의 차원에서 마술로 비추어졌다면 비인성적 차원에서는 신성으로 남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군중심리이론으로 근대의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1841년 Charles Mackay의 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이었고, 19세기 말엽에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대개 군중심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7],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분야의 개척자격인 Gustave Le Bon이 The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 (1895)에서 익명성과 무책임성 그리고 폭력성을 통해 탈선행위가 언제든 가능한 군중심리의 특성을 주장했던 것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탓일 것이다. 하지만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중심리이론은 한 군중의 심리가 개인들의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군중심리에 대한 초기의 주요이론가들로서 Le

Bon 이외에도 Gabriel Tarde와 Sigmund Freud 그리고 Steve Reicher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군중심리 이론이 군중과 개인들의 행위와 사고과정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서 각 개인들의 책임감의 결여와 행위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전체 군중의 행위방식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 간주한다 [8][9][10].

Le Bon은 군중심리의 발전단계를 잠복기(submergence)와 전달기(contagion) 그리고 무의식기(suggestion)로 분류하고, 앞서 보듯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무의식에서 비롯된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이 대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군중의 법적 과실 가능성과 무책임성을 강조한다[11]. 이외에 Freudian 심리학은 그동안의 도덕률로 작용하던 초자아가 군중으로 대체되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집단의식을 명분으로 내린 명령이 군중의 무의식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서 McDougall은 군중이 공유하고 있는 단순한 감정들이 구성원들의 무의식으로 기능하여 원시적 형태의 감정수준으로 존재한다고 역설한다[8]. 그에 따르면 문명전의 사회구조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중심리에 역행하는 방법은 단지 그것에 반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Moscovici는 모택동과 스탈린과 같은 강력한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집단무의식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주장한다[12].

이외에 Convergence 이론은 군중의 행위를 군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유사한 개인들이 모인 것에 따라 생산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9][11]. 이 의견은 개인들의 비이성적 판단보다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학교나 정당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위를 강화시킴에 따라 단합된 행동하는 현상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Emergency Norm 이론은 군중의 지도세력의 특별히 돋보이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묵인되는 방식으로 군중심리가 작용된다고 주장한다. Ralph Turner와 Lewis Killian은 중요한 구성원들이 적절해 보이는 행위를 제안하고, 이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날 때 군중의 규범이 발생한다고 역설한다[11]. 그 중요한 인물들의 독특한 인성과 행위는 주위로부터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 없는 소위 묵시적 합의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순응하는 존재들이 되면서 다수의 행위가 일정한 관행적 규범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8][9]. 또한 Social Identity 이론은 개인보다 사회의 정체성이 우선되는 바람에 복잡한 갈등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 개인의 자아는 집단의 소속여부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여 수많은 집단들과 도덕적 행위규범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등장하여 나머지 집단들과 구성원들의 자아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13].

마지막으로 탈개인화 이론은 익명성과 집단일체성 그리고 일정한 자극이 죄의식에 따른 창피함과 자기 평가적 행위 등 개인적인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특히 소속의식이 강한 집단에서 개인이 자아정체성을 순간적이거나 잃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감소된 현상을 설명한다. 탈개인화 이론은 특히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행위를 가장 잘 말해주는 까닭에 위의 이론들 중 오늘날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단학살 등 테러행위와 온라인으로 범해지는 따돌림 현상 등 국내외적 폭행범죄에 대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14][15]. 이러한 이유

가 이 논문의 저작동기가 되며, 필자들은 다음에서 “The Vigilante”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이론의 면모를 고찰하려고 한다.

### 3. Steinbeck의 “The Vigilante”에 나타난 군중심리의 탈개인화 과정

탈개인화 이론은 개인과 사회의 역할이 약화된 반면에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여 이성적 판단보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The Vigilante”에 나타난 군중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Mike는 군중심리를 불륜행위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스스로 흑인을 죽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듯이 자아정체감이 현저하게 상실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Mike는 사회적 자폐증에 있는 상태로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타인들의 공동행위여부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소신은 존재하지 않아서 군중의 폭력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자살과 같은 비정상적 행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것에 관하여 [16]는 탈개인화가 반드시 자의식이 상실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의 자아정체정보보다 우선시됨에 따라 개인들이 집단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개인화의 효과는 그 집단 정체감의 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 “The Vigilante”의 줄거리를 탈개인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집단적 폭행을 저지른 군중이 천천히 사라지자 주인공 Mike는 자신의 흥분이 급격하게 감소됨을 느끼고, 몇몇 사람들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줄에 매달려있는 흑인죄수의 시체를 훼손하려하는 것을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귀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그 날에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지만, 신기하게도 열정이 식어버린 심상을 외로운 감정만이 대신할 뿐이다. 그 때 문인 Mike는 술집을 들러서 그 곳의 바텐더 Welch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전해 주면서 그가 군중과 함께 감옥을 습격했던 과정에서 획득한 죄수의 청바지 천 조각을 보여준다. 그러자 Welch는 가게에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둘 기념품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의 절반을 구매한다. 한편 이 술집의 영업이 끝나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과정에서 Welch는 그 희생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서 Mike는 정직하게도 죄수가 너무나 조용하고 체념했던 탓에 그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린치행위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움을 주기로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Mike가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만족스러움을 발견하고 외간 여자와 만났는지를 따져 묻는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감옥에 있던 흑인 죄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인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욕실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얼굴표정이 성행위를 연상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The Vigilante”는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1930년대 미국에서 흔하게 발생했던 군중심리에 따른 반규범적 행위의 위험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탈개인화된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앞의 줄거리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는 Mike와 자경단원들이 권한 없이 살해한 흑인의

시체가 있는 광장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그 일이 끝난 후 Mike의 눈은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그는 멍한 상태를 느꼈다. 그는 그것의 충분한 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Mike filled his eyes with the scene. He felt that he was dull. He wasn't seeing enough of it)”[17]. 이 문장에서 Mike가 개인으로서가 아닌 집단의 일체로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이 지난 후 구성원들이 하나 둘 떠나자 원래의 자기로 돌아오고 그 결과 이탈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가 바텐더 Welch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군중의 해체이후 만들어진 공허함을 메우려고 작은 모임을 형성하고, 다시 한 번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한 흥분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Mike는 흥미가 격감되었던 탓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했던 상황이 경청하고 있는 Welch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작가의 다른 유사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The Dubious Battle*에서 Mac과 Jim이 노동자들의 과업을 자신들의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하려는 주동자의 입장에 있는 점과 반대로 Mike는 순전히 집단 내 수직관계가 없이 자발적으로 행위에 참가한다. 또한 “*The Raid*”와 *The Grapes of Wrath*에서 주인공들이 집단의식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영속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 Mike는 집단형성과 행위를 통한 전율을 맛 본 후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만큼 찾아오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탈개인화의 전형적인 증상으로서 그가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군중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의미함이다. 이 때 집단해체이후 생겨난 고립감은 더 커다란 존재에 소속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의 한 폐해라고 할 것이다. 즉 Mike를 포함한 군중들은 자신들이 행한 폭력행위에 대한 명분과 가치를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앞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일부 군중은 흑인이 죽자 그 시체를 신문에 붙여 훼손하려고 하고, Mike와 Welch가 희생자의 의류조각을 두고 감동을 재현하려 하지만 정작 그 바텐더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주인공은 대답대신 그가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고 전할 뿐이다.

여기에 탈개인화 이론을 적용해보면 Mike는 자기의 윤리적 평가와 그것에 따른 검열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반규범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심리상태를 경험한다[5]. 이러한 상황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예민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합리적 선견지명을 가지지 못하는 바람에 부질없는 반사회적 행위가 생성된 경우로 해석된다. 대개 이러한 경우 개인들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질수록 도덕적 자기검열과 사회의 규범성의 손실이 크게 나타난다[8]. 그 결과 탈개인화 현상은 *The Dubious Battle*에서처럼 일면 영웅적인 행위로 보일만한 긍정적인 효과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폭력성을 표출하는 반규범적 집단행위에 대한 해석에 이용되고 있다[18]. “*The Vigilante*”에 나타난 현상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무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동안 있었을 행동기준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만들어낸다[19].

앞서 말했듯이 Le Bon이 폭력적 또는 영웅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탈개인화적 군중심리를 소개한 후 Freud, McDougall, Blumer, 그리고 Allport의 집단적 심리에 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

었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Festinger와 Pepitone 그리고 Newcomb 등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각 개인들로서 취급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탈개인화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후 Zimbardo가 익명성과 약화된 사회구속력 그리고 감각의 과부하와 같은 요소가 정신적 투입과 산출을 흐리게 만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15]. 특히 그의 Stanford 감옥 실험은 탈개인화의 힘을 명료하게 보여주었고, KKK 단원과 간호사의 복장에 따라 공격성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탈개인화의 상황에 관련된 규범적 기대치가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4. 결론

이상에서 “The Vigilante”의 내용은 탈개인화된 자생적 집단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단은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사회적 클럽과 같이 간단하고 소박한 유형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이다. 토론, 음악, 장기, 축구, 테니스, 사이클링 등 동호회만 보더라도 그 집단은 구성원들의 행위에 의미를 주는 한편 인간의 군집성 본능의 자극을 만족시키고, 집단적 생활의 만족감을 배가한다. 문제는 단순해 보이는 이들 집단마저도 소속의식이 강요되거나 집단의 규모가 비대해져서 익명성이 생겨나고, 개인의 책임감이 막강해진 집단에게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탈개인화 현상의 자극이 생성된 경우 Mike가 자랑스럽게 참여했던 반사회적 행위가 언제든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단적 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소규모 하부 집단의 역동성이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으며[21],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의 규범이 사실은 상황에 의존하여 변경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탈개인화 군중심리이론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 여러 집단들이 가진 본질적인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유효한 지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과 군대 그리고 종교집단 등과 같이 외부집단과 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에서처럼 익명성이 내포된 집단적 행위에 있어서 소속되거나 참여한 개인들의 정체성이 항상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7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등장했던 촛불과 태극기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모임에서의 탈개인화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 범죄행위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가진 문학작품을 통한 연구는 나름의 실익이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1] M. Salazar, John Steinbeck's Phalanx Theory. *Ilha do Desterro 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Literatures in English and Cultural Studies* (1990), Vol. 23, pp.99-116.
- [2] R. Wallstein and E. Steinbeck, *Steinbeck: A Life in Letter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5).
- [3] L. Owens, *John Steinbeck's Re-Vision of America*. Athens, GA: U of Georgia P (1985).
- [4] B. G. Jung and G. G. Lee, Wish of Modest Gains of Breakfast Veiled in Communis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6), Vol. 7, No. 5, pp.47-62.
- [5] E. Diener, R. Lusk, D. DeFour, and R. Flax, Deindividuation: Effects of Group Size, Density, Number of Observers, and Group Member Similarity on Self-consciousness and Disinhibit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Vol. 39, pp. 449-459.
- [6] W. McDougall, *Group Mind: A Sketch of the Principles of Collective Psychology, with Some Attempt to Apply Them to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ife and Character*. New York: G.P. Putnam's Sons (1920).
- [7] T. K. Whipple, *Steinbeck: Through a Glass, though Brightly*. *New Republic* (1938), Oct. 12, pp.274-275.
- [8] A. S. K. Manstead and M. Hewston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Oxford, UK: Blackwell (1996).
- [9] M. S. Greenberg,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Hoboken, NJ: Wiley (2010).
- [10] H. Toch, *Psychology of Crowds Revisited*. *Contemporary Psychology* (1988), Vol. 33, No. 11, p. 954.
- [11] S. Reich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12] H. C. Triandis, *Theoretical Framework for Mass Psychology*. *Contemporary Psychology* (1987), Vol. 32, No. 2, pp. 123-124.
- [13] J. P. Guilford, *Fields of Psychology* (Third ed.). Princeton, NJ.: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66), pp. 192 - 205.
- [14] E. Staub, *Cultural-Societal Roots of Violence: The Examples of Genocidal Violence and of Contemporary Youth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1996), Vol. 51, pp. 117-132.
- [15] S. Kiesler, and L. Sproull, *Group Decision Mak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Decision Processes* (1992), Vol. 52, pp. 96-123.
- [16] E. J. Lee,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 Self 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2007), Vol. 57, No. 2, pp. 385-403.
- [17] J. Steinbeck, *The Long Valley*. New York: Penguin (1995).
- [18] E. Diener, S. C. Fraser, A. L. Beaman, R. T. Kelem, *Effects of Deindividuation Variables on Stealing among Halloween Trick-or-treater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976), Vol. 33, pp. 178-183.

- [19] Roeckelein, Jon. Deindividuation Theory in Elsevier's Dictionary of Psychological Theories. Amsterdam: Elsevier B.V. (2006).
- [20] P. Zimbardo, The Human Choice—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9), Vol. 17, pp. 237 - 307.
- [21] S. Reicher, R. Spears, T. Postmes,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Edited by W. Stroebe and M. Hewston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Chichester, England: Wiley (1995), Vol. 6, pp. 161-198.